

마음 열기

찬송가 292장을 함께 부르시다.

내 주변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말씀 나누기 전도서 7장 1-3절, “지혜로운 자”

좋은 인격을 만드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1절a).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라고 말씀합니다(1절a). 여기서 ‘좋은 이름’은 좋은 인격을 뜻하며, ‘좋은 기름’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인생이자 인격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좋은 인격이란 곧 ‘신앙 인격’을 말합니다. **신앙 인격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의 기준을 오직 ‘믿음’에 둘 때 만들어집니다.** 학생이 공부를 할 때나 직장인이 일을 할 때에도, 주를 위해 쓰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할 때 신앙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유익을 얻으려고 힘쓰기보다, 신앙인격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한 신앙 인격을 만드는 것은 속사람을 단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겉모습을 단장하기보다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기에 힘써서, 신앙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벧전3:3-4).

천국 소망을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1절b).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라고 말씀합니다(1절b). 출생은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고통과 무거운 짐을 지기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생에는 기쁨 뿐만 아니라 근심과 걱정도 따릅니다. 반면, 죽는 날은 이 세상의 모든 고생과 수고가 끝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죽는 날이 더 유익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은 영과 육이 갈라지는 것 뿐이고,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비된 천국을 바라보며,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유익됨을 깨닫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라고 말씀합니다(2절a). 우리는 잔칫집보다 초상집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죽음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고, ‘민

음으로 바로 살자’ 하며 마음을 부여잡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물질과 명예, 실력과 외모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돌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2절b).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깨닫고, 기회가 있을 때 마음을 바로잡아 주를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고 말씀합니다(3절). 이 말씀은 세상에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운 순간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찾고, 주를 위한 거룩한 근심을 가질 때 마음에 참된 유익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즐겁고 평안하기만 하면 마음이 무뎠어지고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삶이 풍요로워졌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 망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포로로 끌려가 마음에 근심을 안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비로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욥 역시 자녀들의 잔치가 끝난 후에 항상 하나님을 찾으며 혹시 범한 죄가 없는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주를 위한 근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쁨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찾고 주를 위한 마음의 근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과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맺음말.

지혜로운 자는 신앙 인격을 만들어가고, 천국 소망을 품으며, 죽음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 일로 마음이 분주하고 세상 짐에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 마음을 내려놓고 내 신앙 인격을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지금이 바로 은혜받을 기회이자 믿음으로 달려갈 기회입니다.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를 향한 근심과 믿음으로 다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기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다.

1. 내가 그동안 얻기 위해 힘썼던 ‘좋은 기름(세상의 것)’은 무엇이었나요?
2. 장례식(초상집)을 통해, 혹은 주변의 죽음을 보면서 내 삶을 돌아본 적이 있나요?
3. 나는 지금 무뎠어 있나요? 아니면 주를 위한 근심에 사로잡혀 있나요? 되돌아봅시다.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1. 신앙 인격 대신 세상의 인격을 열심히 쌓았던 모습을 회개합시다..
2. 언제 어디서나 오직 천국 소망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3. 잠시 세상 짐을 내려놓고, 주를 향한 거룩한 근심을 회복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신앙백과 _ “개인 경건 vs 공동체 신앙생활”

성경은 신앙생활을 결코 ‘하나님과 나’ 단둘만의 개인적인 관계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홀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개인 경건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과 성장의 완성 공간은 언제나 공동체였습니다.

1.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완벽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시는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1:26). 이것은 인간을 처음부터 공동체적 존재로 빚으셨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고립된 개인 신앙은 공동체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할 수 없습니다.

2. 구원은 우리를 ‘한 몸’으로 묶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사신 사건입니다(고전12:27). 우리는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붙은 ‘지체’입니다. 손과 발이 몸을 떠나 살 수 없듯, 성도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3. 성경의 핵심 명령은 ‘서로’ 안에서만 성립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명령은 혼자서는 절대 수행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예컨대 “사랑으로 서로 중 노릇 하라[갈5:13]”,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엡 4:32]”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나의 죄성이 온전히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공동체’에서 비로소 나의 진짜 이기심과 숨은 우상이 적나라하게 폭로됩니다. 하나님은 이 부딪힘 속에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복음을 붙잡아 회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성화) 하셨습니다.

개인의 경건 훈련은 공동체 생활을 위한 기초 체력일 뿐, 신앙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공동체는 떨어지면 받아주는 ‘안전 그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외줄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고, 구속되었으며,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변화됩니다. 참된 신앙은 불완전한 지체들과 함께 공존하며, 그 속에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 공동체”, 생명의 말씀사

FAMILY 나눔

2026년 5월 17일

지혜로운 자

전도서 7장 1-3절

